

“부탁한다고 됐겠나? 논리로 설득했지”

KBO 구본능 총재가 말하는 10구단 창단 막전막후

9구단 체제로선 파행 불 보듯 뻔했지
돌이켜보면 9구단 창단이 더 용한 일
전북 패착? 전주시장 열풍 비쳤어야

한국야구위원회(KBO) 구본능 총재는 앞으로 한국프로야구사에서 10구단 체제를 이끈 산파역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. 구단별로 처한 입장에 따라 '10구단 창단 반대' 목소리가 작지 않았지만, 구 총재는 이를 극복해 10구단 창단 결의를 이끌어냈고, 한국프로야구는 KT-수원, 부영-전북의 치열한 유치경쟁을 거쳐 제10구단으로 KT-수원을 택했다. 17일 최종 절차인 구단주 총회를 앞두고 있지만, 사실상 형식적 절차

에 그칠 전망이다. 그러나 구 총재는 “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”며 긴장을 풀지 않았다. 15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(WBC) 대표팀 출정식에서 구 총재를 만났다.

●10구단 창단, 내가 아니라 (10구단 필연) 논리가 만들어냈다!

10구단 창단 결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. 한국야구는 파행직전까지 갔다. 이 과정에서 구본능 총재는 10구단 창단의사를 지닌 일부 구단들의 옴니버스를 직접 만나 설득작업을 펼쳤다. 10구단 창단 결의의 결정적 계기였다. 이에 대해 구 총재는 “내가 한 것은 없다. 내가 아무리 부탁한다고 됐겠나? 논리가 했을 뿐”이라며 자

신을 낮쳤다. “9구단 체제로선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니, 당연히 10구단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꿰뚫어 봤”이라며 “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10구단 창단보다, 어떻게 9구단 창단을 이끌어냈는지, 그게 더 용한 일인 것 같다”고 말했다. 10구단 창단에 대해서조차 반대 논리를 펼친 구단들이 있는데, 이에 앞서 더 강한 반대 여론과 명분이 있었음에도 9구단 창단 결의를 이끌어낸 전임 KBO 수뇌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.

●표 차이가 너무 나서 안타깝다!

구본능 총재는 “10구단으로 결정된 KT-수원뿐만 아니라, 부영-전북도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갖고 야구단에 대한 열정도 많았다”며 “너무 많은 표차가 났다는 게 아쉽다”고 말했다. 부영-전북이 평가위원 개별 평가에서 5대16으로 뒤진 사실을 떠올린

것이다. 그러면서 구 총재는 자신이 보는 부영-전북의 유치 실패 원인을 꼽았다. “전주 시장이 얼굴을 보이지 않은 게 가장 큰 패착이다. 거기서 5표는 차이가 났을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(PT) 당시 KT-수원에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의 동석해 유익한 관계를 과시한 것과 달리 부영-전북에선 정작 야구장이 들어설 전주 시장 관계자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. 전북 쪽에선 김완주 전북도지사만 PT에 참석했다.

김도현 기자 dohoney@donga.com
트위터 @kimdohoney

▶ KBO 구본능 총재



NC 선수단이 15일 미국 애리조나로 전지훈련을 떠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 NC는 다음달 16일까지 애리조나에서 1차 전훈을 소화한 뒤 대만 자이언츠로 옮겨 3월 2일까지 2차 스프링캠프를 진행한다.

올 시즌은 ‘공약 검증’부터? 말 아끼는 LG 김기태 감독

지난해 “60패만 하겠다” 공약 못지켜
“머릿속 구상, 전문가 평가 먼저” 신중



LG 김기태 감독(사진)은 2013시즌 준비에 돌입했지만 아직 구체적 목표를 공개하지 않았다. 7일 선수단 시무식에서 김 감독은 “구성원 각자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공식적인 팀 훈련을 시작한 15일에도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무한경쟁만을 강조했다. 시즌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. 머릿속에 이미 어느 정도의 시즌 구상과 목표를 설정했을 텐데도,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.

해답은 지난해에서 찾을 수 있다. 지난해 LG 사령탑에 취임한 김 감독은 시즌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다. “한 시즌 동안 60패만 하겠다”고 선언했다. 지난 시즌은 팀당 133경기를 치렀다. 73경기를 승리하거나 무승부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. 그러나 LG는 57승4무72패, 7위로 시즌을 마감했다. 김 감독은 결국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.

김 감독은 15일 “이해를 부탁한다. 감독인데 왜 어느 정도의 구상을 하지 않았겠는가.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, 일단 LG에 대한 야구전문가들의 평가부터 받아보고 싶다”며 말을 아꼈다. 지난 10년간 이루지 못한 포스트시즌 진출의 꿈을, 올해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꼭 실천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김 감독이다.

최용석 기자 gtyong@donga.com 트위터 @gtyong11

생애 첫 연봉삭감...최형우 “독해지겠다”

지난해보다 2000만원 깎인 2억8000만원
주장으로선 전훈 불참 부담...“일찍 사인”

“연봉삭감이 사람을 더 독하게 만드네요.”

삼성 최형우(30)는 15일 지난해 연봉 3억원에서 2000만원(6.7%) 깎인 2억8000만원에 사인했다. 2008년 신인왕 수상 후 해마다 연봉 상승곡선을 그리다 처음 겪는 연봉삭감. 그래서인지 그는 “연봉 계약 후 다들 후회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후회하지 않다”며 한숨을 내쉬었다.

방출과 재입단, 그리고 늦깎이 신인왕. 인간승리의 드라마를 써나간 그는 특히 2011년에는 타율 0.340에 홈런(30개) 1위, 타점(118개) 1위, 장타율(0.617) 1위 등 타격 3관왕에 오르며 삼성의 간판타자가 됐다. 때

를 잘못 만나 투수 4관왕 윤석민(KIA)에게 밀리면서 시즌 최우수선수(MVP)를 놓쳤지만, 지난해 MVP인 넥센 박병호(타율 0.290·31홈런·105타점·장타율 0.561)와 비교해도 훨씬 뛰어난 성적이었다.

그러나 거칠 것 없어 보이던 최형우에게 시련이 닥쳤다. 지난해 시즌 초반 끝 모를 부진에 시달렸다. 5월 20일까지 타율 0.206에 홈런은 0개, 4번타자 자리도 내놓았고, 2군까지 강등됐다. 스스로 “야구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. 건방졌다. 생각대로 다 되는 줄 알았다. 욕심을 내다 잘못했다”고 진단했다. 절치부심한 그는 결국 시즌 타율을 0.271까지 끌어올렸고, 14홈런, 77타점으로 마감했다. 타점은 8위까지 치고 올랐다.

그러나 구단의 연봉 책정은 냉정했다. 최형우는 동결을 주장하며 버티다 결국 자존심을 굽혔다. 올 시즌 삼성 주장에 선임된 그는 “주



삼성 최형우가 2008년 신인왕 수상 이후 처음으로 연봉삭감의 한파를 맞았다. 처음 맞보는 연봉삭감을 분별의 계기로 삼겠다는 최형우다.

장이 캠프 안 가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. 솔직히 그래서 빨리 사인했다. 이왕 계약했으니 빨리 마음부터 잡겠다”고 말했다. 전지훈련은 20일부터 시작하지만, 이날 먼저 이승엽 김상수와 함께 전주지인 캠프로 날아갔다.

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. 그 말이 의미심장했다. “연봉삭감이 더 독하게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. 작년 초반 같은 부진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. 올해 한번 지켜보라.”

이재국 기자 keystone@donga.com 트위터 @keystonelee

넥센 염경엽 감독이 꼽는 올 시즌 기대주는?

투수는 강운구·장효훈·김상수·한현희
차세대 안방마님 후보 1순위엔 박동원
발 빠른 장기영·유한준·이성열도 기대

넥센은 지난해 최우수선수(MVP) 박병호와 신인왕 서건창이라는 ‘히트상품’을 배출했다. 국가대표급 유격수로 발돋움한 장영호도 빼놓을 수 없다. 그러나 올해를 ‘4강 원년’으로 삼으려면, 부족한 ‘2%’를 채워야 한다.

염경엽 신임 감독도 골든글러브 3총사 이외의 다크호스들에게 기대가 크다.

염 감독이 꼽는 투수 기대주는 강운구, 장효훈, 김상수다. 불박이 토종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할 재목들이다. 지난해 신인 한현희도 주목하고 있다. 이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 선수들이니, 올해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라고 있다. 염 감독은 “지난 시즌 마무리훈련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들이다. 스프링캠프에서도 그 모습을 유



지한다면, 올해 우리 팀에 큰 힘이 될 것 같다”고 밝혔다. 염 감독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포수 박동원은 차세대 안방마님 후보 1순위다.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게 약점이라 출장 기회를 많이 줄 생각이다.

백영은 기자
penji | 곽정일 기자 ico@donga.com 트위터 @mkh2357

‘행운아’ 류현진...ML, 마운드 통역 도입

류현진(26·LA 다저스)에게 또다시 행운이 찾아왔다. 미국 스포츠전문미디어 ESPN은 15일(한국시간)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“구단주들이 ‘이번 시즌부터 감독이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갈 때 통역을 대동할 수 있다’는 개정안에 합의했다”고 보도했다. ESPN은 또 “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투수들을 위한 롤”이라며 “텍사스 감독과 투수코치는 이제 마운드에 있는 다트빗수 유(일본)를 향해 혼자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”고 예를 들었다. 곧 열릴 선수노조의 승인을 받으면, 이 개정안은 당장 도입된다.

아직 영어가 서툰 류현진에게는 당연히 호재다. 한국에선 경기 도중 외국인투수가 힘들어할 때 감독이나 투수코치가 통역과 함께 마운드에 올라가 다독이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.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선 지금까지 마운드에 통역을 대동하는 일이 금지돼왔다. 지난해 말 류현진이 MB C토크쇼 ‘무릎팍도사’에서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하다. 그런데 때마침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에 맞춰 구단주들이 룰 개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. 출발부터 운이 따르는 류현진이다. 백영은 기자 yeb@donga.com 트위터 @goodgoer

한화 김혁민, 1억1400만원에 연봉 재계약...78%↑

한화는 투수 김혁민과 지난해 6400만원에서 78.1% 오른 1억1400만원에 올해 연봉 재계약을 했다고 15일 밝혔다. 2007년 프로에 데뷔한 김혁민은 지난해 선발로 8승(9패)을 올려 올해 역대연봉차 대역에 처음 합류했다. 내야수 오선진은 3800만원에서 131.6% 인상된 8800만원, 투수 유창식은 2400만원에서 166.7% 오른 6400만원에 각각 재계약했다. 한화는 재계약 대상자 47명 중 김태권(15억 원)을 포함한 44명과 협상을 마쳤다.